

# 장서각 소장 『통리아문선생안』 분석

##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운영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상관성 -

정소영\*

### 〈차 례〉

- 머리말
- 장서각 소장 『통리아문선생안』의 특징과 한계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운영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상관성
-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고종대 외교관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전임자들의 인명부인 『통리아문선생안(統理衙門先生案)』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등재자들의 출신 성분과 재임기간을 분석해 교섭아문과 인적 구성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통리아문선생안』의 활용에는 임명·체직란의 중임 기록, 다수 기록의 결손과 오기 및 이체자 사용 같은 자료상 한계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여러 자료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적구성원의 계승을 통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그 전신인 통리기무아문, 통리아문의 업무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갑신정변과 1887년의 관제개혁을 기준으로 등재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살펴보고, 등재자의 출신성분과 근무일수를 검토하여 교섭아문 운영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이들은 주사들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중인 출신자들이 장기간 근무로 교섭아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리아문선생안』은 외교 업무를 전문화하고자 하였던 당대 조선 정부의 교섭아문 운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선생안, 통리아문선생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외교, 중인

\* 원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1. 머리말

『통리아문선생안(統理衙門先生案)』은 1882년(고종 19)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하 교섭아문)에서 근무했던 관원들의 명단을 기록한 인명부이다.<sup>1)</sup> 교섭아문은 근대 문물제도를 수용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위해 1881년(고종 18) 설립된 기구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분리되면서 1882년 설립되었다. 임오군란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통리기무아문이 기무처(機務處)로 일시적 과도기를 거쳐, 같은 해 11월 17일 통리아문(統理衙門)으로 다시 부활하며 “外務”를 관할하기 시작한 것이 관서의 확대·개편과 함께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교섭아문으로 계승된 것이다.<sup>2)</sup>

통리기무아문의 창설로부터 교섭아문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임오군란과 이를 수습한 청의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 변동의 차원에서 설명된다. 청에서 초빙한 외국인 외교고문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의 존재와 청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방한 조직 편제를 통해 청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1887년(고종 2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속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續章程)』(이하 속장정)의 제정으로 확인되는 교섭아문의 관제개혁 또한 청의 내정간섭 심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종이

1) 『통리아문선생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하 장서각)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소장본이 있다. 두 소장본 간의 상세한 차이는 2장에서 다룰 것이나, 장서각본과 규장각본을 비교 검토한 결과 내용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서각본 서명에 따라 일반명사의 의미로 『통리아문선생안』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두 소장본을 비교하는 경우 각 선생안의 명칭은 ‘통리아문독판선생안(統理衙門督辦先生案)’, ‘통리아문협판선생안(統理衙門協辦先生案)’, ‘통리아문참의선생안(統理衙門參議先生案)’, ‘통리아문주사선생안(統理衙門主事先生案)’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고종실록(高宗實錄)』 권19, 19년 12월 4일 丙辰; 전미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 24·2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9, 223쪽; 유바다, 「交隣에서 外交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관능과 한계」, 『한국사학보』 77, 고려사학회, 2019, 15쪽.

3) 김수암, 「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도 수용: 외무부서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34(2), 한국정치학회, 2000, 333-334쪽.

친청파의 정부 요직 장악과 관련하여 교섭아문의 주요 관직도 친청파 인물들이 차지하게 된 상황을 경계하고자 1885년(고종22) 내무부(內務府)를 설치하고, 1887년에는 교섭아문의 소관 업무 축소 및 외교 업무 특화로의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sup>4)</sup> 이 시기의 속장정의 제정과 관계개혁은 한편으로 교섭아문 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 업무 내용이 명문화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sup>5)</sup> 대체로 청의 영향력과 관련한 정치적 변동이 1880년대 외교부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의도적인 조처였던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교섭아문은 그 설립부터 운영까지 시세의 변화를 겪으며, 점차 그 전문성이 강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외교 전담부서로서의 교섭아문의 전문성은 1882년 설립 당시 외교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교섭아문에서 처리하도록 한 고종의 전교로부터 표방된 이래, 1887년 속장정의 제정으로 기능적으로는 외교와 통상만을 전담하는 전문관서가 되며 이어졌다.<sup>7)</sup>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변화를 통해 교섭아문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외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국가의 통치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제도를 통한 관서의 구축 외에도 근무하는 관원들의 면면 또한 업무의 전

4) 한철호, 「閔氏威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 『韓國史研究』 90, 한국사연구회, 1995, 5쪽; 장영숙, 「내무부 존속년간(1885년~1894년) 고종의 역할과 정국동향」, 『상명사학』 8, 상명사학회, 2003, 326~330쪽; 민희수, 「갑오개혁 이후 대외교섭체계의 변화」, 『東方學志』 2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219~220쪽. 한편 김수암은 이 시기 6사 편제로의 관계개혁이 청의 통리아문보다는 일본의 외무성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였다고 보았다(김수암, 앞의 논문, 336쪽).

5) 森万佑子, 『朝鮮外交の近代; 宗廟關係から大韓帝國へ』, 名古屋大學出版會, 2017, 87쪽.

6) 사카이 히로미(酒井裕美)는 교섭아문과 統理軍國事務衙門을 '친청(親淸) 갈등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행연구에서 친청파로 거론되고 교섭아문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의 범위와 근거로 삼고 있는 사료가 각 연구마다 일정치 않다는 점을 분석하여, 교섭아문을 '친청'적 성격으로만 파악하는 기존의 통설을 비판한다(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2016, 62~64쪽 참조). 그러나 이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므로 자세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로 미루도록 하겠다.

7)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906책, 고종 19년 11월 17일. 한편 전미란은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교섭아문의 제 기능들이 축소되었다고, 1887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교섭아문은 외교와 통상만을 전담하는 전문관서로 개편되었다고 한다(전미란, 앞의 논문, 226쪽). 김필동은 이때의 교섭아문의 조직 개편으로 교섭아문의 조직은 과거보다 훨씬 짜임새 있어졌고, 업무는 훨씬 더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김필동, 「갑오경장 이전 조선의 근대적 관계 개혁의 추이와 새로운 관료 기구의 성격」, 『사회와 역사』 33, 한국사회사학회, 1992, 43쪽).

문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서의 운영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 것은 해당 관서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교섭아문이 설치된 1882년부터 갑오개혁으로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변화한 1894년까지 교섭아문에서 근무한 관원의 재임기록이 확인되는 사료로는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이 있다. 그러나 편린으로 흩어져 있는 위 기록들을 통해 관원들의 재임 실태를 한눈에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그러한 난점을 해결해주는 자료가 바로 『통리아문선생안』인 것이다.

선생안(先生案)이란 한 관서 또는 한 관직의 역대 재임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직의 임면기록이 총체된 자료이다. 임면을 통한 인사관리는 인사 주체의 정책적 의지를 잘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안은 조선 정부의 인사 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통시적인 자료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료적 가치를 띠고 있는 선생안의 일종으로써 『통리아문선생안』은 조선 정부의 외교 전담 부서인 교섭아문에 대한 운영 의지와 태도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통리아문선생안』의 활용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8)</sup> 결손된 기록이 다수 존재함에도 자료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한 검토 없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이를 지적하고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미진했다. 따라서 『통리아문선생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우선 요구된다.

8) 기존 연구는 전미란, 앞의 논문, 227~235쪽; 한승연, 「행정개혁기구의 개혁 성공 조건: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의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1), 한국정치학회, 2015, 1550~1554쪽 참조. 오승관은 갑오개혁 전후의 주사직을 연구한 학위논문의 [부표 1]에서 『승정원일기』와 『관보』를 참고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 명단을 정리하고, 결손된 임명과 해임 날짜를 보충하고 있다. (오승관, 「갑오개혁 전후 관제 변화와 主事職」,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참조) 그러나 필자가 『통리아문선생안』의 기록과 『승정원일기』를 대조하여 확인해본 결과 동명이인의 사례를 구분하지 않은 것과 주사직을 역임하는 중 타 관직을 겸직하고 있었던 점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통해 『통리아문선생안』을 보완하고, DB화하였다. 지면의 제약으로 해당 DB를 본 글에 실지는 못하지만, 『통리아문선생안』의 기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타 자료와의 비교 검증 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승정원일기』 기록을 따랐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한편 『통서일기(統署日記)』를 중심으로 여타 자료들을 활용해 교섭아문의 주사를 분석하여 교섭아문의 일상 업무와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sup>9)</sup> 이 연구는 『통서일기』의 출근 기록을 토대로 1887년 속장정의 관제개혁과 관계된 주사직의 변화와 1892년을 기점으로 외아문(교섭아문)에 출근하는 주사들이 고정화되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1892년 이후 주사직 중 고정 근무자들이 된 김영문(金永汶), 이현상(李鉉相), 유기환(兪箕煥), 정대영(丁大英), 진상언(秦尙彦) 등 10인의 향후 진로를 제시, 대체로 외교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들이 외교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위 연구는 주사직 분석을 통해 외교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하지만 『통리아문선생안』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사들의 재임기간 및 인적사항을 타 자료와 교차 검증해 확인 가능한 출신성분 등을 연계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sup>10)</sup> 조선에서 출신은 해당 인물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에 어떤 출신을 임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관서 운영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통리아문선생안』 장서각본과 규장각본을 비교 검토하고,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자료가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자한다. 이어 3장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여 『통리아문선생안』을 DB화한 정보를 토대로, 등재 인물들의 연령과 출신 성분과 재임 기간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통리아문선생안』의 사료적 가치를 재고하고자한다. 이 같은 작업은 선생안을 활용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관인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며, 인적 구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서의 변화상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간 관청이나 관직 등을 연구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로만 다루어졌던 『통리아문선생안』을

9) 森万佑子, 「第三章 対外実務の条約関係への対応 - 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の形成」, 앞의 책, 80~114쪽 참조.

10) 사카이 히로미는 교섭아문 재임자들의 출신에 대해 일부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酒井裕美, 앞의 책, 51쪽)

비롯한 기타 선생님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위치지우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이다. 또한 나아가 중앙의 정치사 연구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으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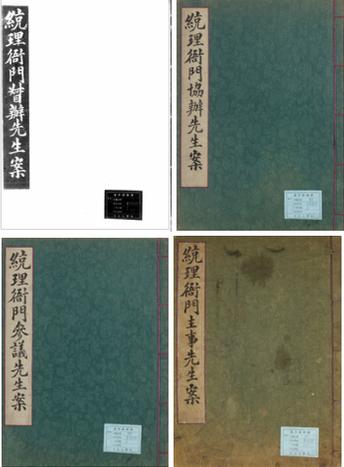
## 2. 장서각 소장 『통리아문선생안』의 특징과 한계

『통리아문선생안』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 전해진다. 두 소장본은 모두 교섭아문의 주요 관직인 독판(督辦)·협판(協辦)·참의(參議)·주사(主事)를 역임한 인물들의 인적사항과 임명·체직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장서각본은 네 개의 선생안이 『통리아문선생안』이라는 하나의 서명으로 합본되어 있으며, 규장각본은 각각의 선생안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선생안(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先生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협판선생안(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協辦先生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참의선생안(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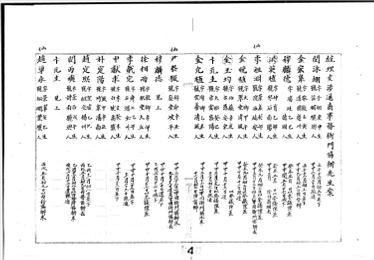
11) 기존의 선생안 연구는 선생안을 기반으로 한 해당 관청 및 관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에서는 장서각과 규장각 등의 기관에 소장된 선생안들의 현황을 정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개별 선생안 자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남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산학선생안』을 『주학입격안』과 비교·분석하며, 『산학선생안』의 특성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특히 선생안에 기재된 인물뿐만이 아니라 선생안의 기재 순서와 관료 및 표식 등에 집중해 선생안이라는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남희, 『『산학선생안』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고문서연구』 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박영미와 정상준은 사학검교수제도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현존하는 3종의 『사학검교수선생안』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박영미와 정상준의 연구는 선생안을 다룬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등재자들의 전력과 연령, 기간 등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선생안 자료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연구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박영미·정상준, 「사학검교수선생안(四學兼教授先生案) 분석」, 『교육사학연구』 29(2), 교육사학회, 2019) 이외에도 이종서, 「蔚山府先生案의 체제와 성격」, 『고문서연구』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이 참조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생안 연구는 위 연구들과 같이 선생안이라는 자료 자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생안을 활용할 연구의 기반이 될과 동시에 선생안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議先生案』,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주사선생안(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先生案)』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sup>12)</sup> 또한 필사되고 퍼낸 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기본적인 책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표 1〕 『통리아문선생안』 장서각본, 규장각본 표지 비교

분류	장서각본	규장각본
표지		

〔표 2〕 『통리아문선생안』 장서각본, 규장각본 속지 비교

분류	장서각본	규장각본
표지		

12) 『통리아문선생안』(K2-613);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독관선생안』(奎18158);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협관선생안』(奎18157);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감의선생안』(奎18159);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주사선생안』(奎18156)

형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규장각본에는 첨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첨지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협판선생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참의선생안』에서 확인된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협판선생안』의 4면에서 볼 수 있는 첨지에는 본문에 수록된 심상학(沈相學), 조병직(趙秉稷), 강문형(姜文馨), 이명재(李命宰), 이중칠(李重七), 남정철(南廷哲), 이현영(李鑣永)의 임명·체직 기록이 있고, 12면에서 볼 수 있는 첨지에는 이시익(李時翼), 정대직(丁大植)<sup>13)</sup>의 임명·체직 기록이 있다. 위 첨지의 기록을 장서각본 『통리아문선생안』, 『승정원일기』와 대조하여 보면, 4면 첨지의 인물은 협판에 임명된 이들이지만, 12면 첨지의 두 인물은 주사에 임명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참의선생안』 3면에서도 첨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규장각본의 본문과 장서각본의 본문엔 ‘이완용(李完用)→정병하(鄭秉夏)→김두환(金斗煥)’ 순으로 되어 있는 기재순서가 첨지엔 ‘정병하→김두환→이완용’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장각본의 본문, 장서각본의 본문, 첨지의 기재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장서각본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첨지엔 “癸巳七月都政以北部都事來”라 하여 정대직이 교섭아문 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정대직이란 인물이 해당 시기 교섭아문의 관직을 역임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대직이 북부도사(北部都事)가 된 것은 1892년 8월 19일이고(『승정원일기』 3025책, 고종 29년 8월 19일), 이후 정대직이 역임한 관직은 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승정원일기』 3040책, 고종 30년 11월 1일), 공조좌랑(工曹佐郎)(『승정원일기』 3040책, 고종 30년 11월 11일), 제중원주사(濟衆院主事)(『승정원일기』 3042책, 고종 31년 1월 28일), 감찰(監察)(『승정원일기』 3044책, 고종 31년 3월 19일), 안협현감(安峽縣監)(『승정원일기』 3051책, 고종 31년 10월 3일)이다. 그런데 정대직이 임명되었다는 시기에 실제로 교섭아문의 주사직에 임명된 인물이 있다. 정대식(丁大植)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른 정대식의 임명 날짜는 1893년 7월 28일이다(『승정원일기』 3036책, 고종 30년 7월 28일). 따라서 정대직의 임명 기록은 필사자가 정대식과 정대직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통리아문참의선생안’ 장서각본, 규장각본, 규장각본 첨지 수록 내용 비교

이름	기록	장서각본	규장각본	규장각본 첨지
홍시형 (洪時衡)	인적 사항	자, 생년, 본관 ○ 호 x	x	x
	임명·체직	○	x	x
김두환	인적 사항	자, 생년, 본관 ○ 호 x	x	자, 생년, 본관
	임명·체직	임명 ○, 체직 x	임명 ○, 체직 x	x
박제교 (朴齊敎)	인적 사항	자, 생년, 본관 ○ 호 x	x	(첨지 수록 x)
	임명·체직	○	○	(첨지 수록 x)
이완용	인적 사항	자, 호, 본관 ○ 생년 x	자, 호, 본관 ○ 생년 x	○
	임명·체직	임명 ○, 체직 x	임명 ○, 체직 x	x
윤치호 (尹致昊)	인적 사항	○	x	(첨지 수록 x)
	임명·체직	○	○	(첨지 수록 x)
박용원 (朴用元) <sup>14)</sup>		수록 x	수록 x	수록 ○

이외에도 두 자료는 인적사항에서 호의 일부 글자의 상이함 또는 임명·체직 기록에서 일부 글자의 첨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주사에 임명된 정학교(丁學敎)의 호가 규장각본에서는 “香壽”, 장서각본에서는 “香壽”로 기재되어 있는 식으로 이체자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임명·체직 기록에서는 날짜를 표기할 때 그 일자 앞에 ‘初’자의 기재·미기재의 여부, 같은 달 혹은 같은 해를 표기할 때 ‘同, 소’자의 기재 여부와 같은 사소한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장각본과 장서각본 통리아문선생안은 책의 형태와 첨지의 존재 여부, 기재 내용에 있어서 이체자 사용 등과 같은 다소 사소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비교 검토한 결과 두 소장본은 내용상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

14) 박용원은 첨지에만 수록되어 있는 인물로, 『승정원일기』 기록상 임명날짜는 1891년(고종 28) 8월 4일이다(『승정원일기』 3012책, 고종 28년 8월 4일).

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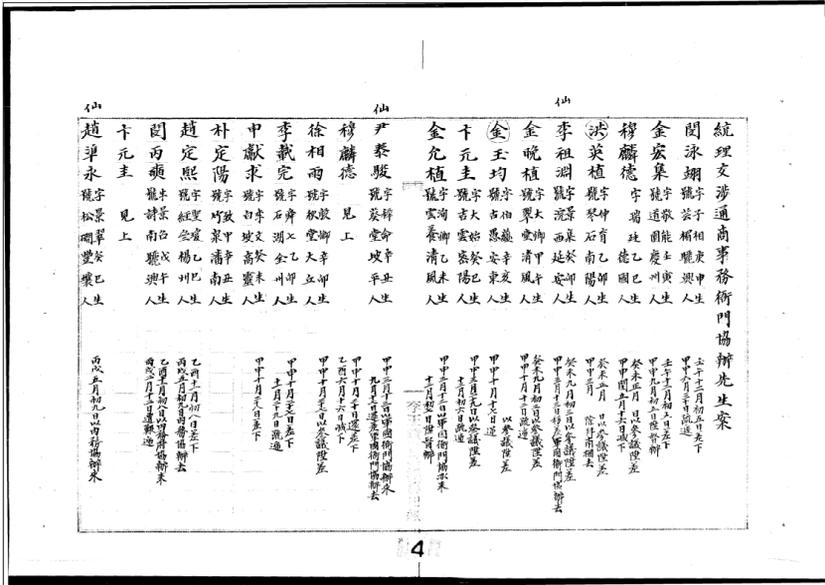
장서각 소장본의 표지 서명은 ‘統理衙門先生案’이다. 서명의 오른쪽 상단에는 ‘主事’, ‘參議’, ‘協辦’, ‘督辦’이 병기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의 해제에 따르면, 기록된 용지는 가로10칸 세로20칸 원고지로, 판심(版心) 하단에 ‘李王職實錄編纂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이왕직실록편찬용지이다. 첫 번째 면의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 소장인이 찍혀 있고, 마지막 장의 판심 바로 오른쪽에 ‘大學圖書館藏本謄書’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장서각에서 제공하는 해제에 따르면, 간행연대는 수록된 내용 중 시기 상 가장 늦은 기록인 독판직에 마지막으로 임명된 남정철의 기록이 1893년(고종 30) 12월(이하 날짜는 음력)이므로, 적어도 1893년 12월 이후에 필사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실제로 『통리아문선생안』에서 가장 늦게 임명된 인물은 1893년 “至月”, 즉 11월 독판직에 임명되었던 조병직이다. 따라서 최소 간행연대는 적어도 1893년 11월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일정 시기에 한 사람에게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제에 따르면, 1893년 이후 작성된 『통리아문선생안』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되고, 1927~1935년 사이 이왕직(李王職)의 주관 하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편찬할 때 경성제국대학 소장본을 등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리아문선생안』의 수록 내용은 여타 선생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명·체직과 관련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가장 상단에 해당 인물의 성명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자, 생년, 호, 본관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지의 두 칸의 간격을 두고는 임명 날짜와 전직, 임명 사유, 체직일과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직에 다시 임명된 중임인자인 경우에는 성명 아

15) 김덕수, ‘統理衙門先生案’,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dataId=ARC\\_kh2\\_je\\_a\\_vsu\\_20613\\_000](https://jsg.aks.ac.kr/dir/view?dataId=ARC_kh2_je_a_vsu_20613_000) (2023. 12. 05.), 이하 본문의 해제에 따른 내용은 이 각주를 참고.

래의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見上”이라 적어 앞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선생안 작성 당시 사망한 인물은 성명 위에 ‘仙’을 표기하였고, 모반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의 경우에는 성씨에 원을 두르거나(‘○’), 육각형 모양의 선을 둘렀다(‘〇’).<sup>16)</sup>



[그림 1] 『통리아문선생안』 4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협판선생안」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16) 작성 당시 사망한 인물들의 사망연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판에 올랐던 이조연(李祖淵)·윤태준(尹泰駿)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당시 사망하였고, 조준영(趙準永)은 1886년(고종 23) 사망하였다. 심상학은 1890년(고종 27) 5월 1일 사망(『靑松沈氏大同世譜』 권2, 89쪽), 이증철은 1892년(고종 29) 7월 13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完山李氏密城君派世譜』 권2, 210쪽). 홍순학(洪淳學)은 1892년 2월 19일 사망하였다(『南陽洪氏南陽君派世譜』 권8, 1350쪽). 주사에서는 박대양(朴戴陽)이 1886년, 강제륜(康載倫)이 1886년 6월 16일(신천강씨대종회 인터넷 족보, 양주과, 37세손, <http://www.sckang.org/skin/> (2024.01.25.)), 윤택선(尹宅善)이 1888년(고종 25) 11월 1일(『海平尹氏大同譜』 권3, 1000쪽), 윤치항(尹致恒)이 1888년 10월 14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海平尹氏大同譜』 권4, 294쪽). 그러나 윤치항은 『승정원일기』에 1890년 11월까지 관직 활동 기록이 확인되며 1890년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승정원일기』 3003책, 고종 27년 11월 2일). 가장 늦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증철의 물년(물년)이 1892년이기 때문에 『통리아문선생안』 작성 시점과 사망자들의 물년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반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변수(邊旻)이며, 이들은 1884년 갑신정변과 관련한 인물들이다.

이상은 『통리아문선생안』의 기본적인 기재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리아문선생안』의 전체 수록 인물은 중복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180명으로, 독판 11명, 협판 27명, 참의 23명, 주사 119명이다.<sup>17)</sup> 임명날짜는 가장 이른 날짜는 1882년 12월 5일이며, 가장 늦은 임명날짜는 1893년 11월 26일이 된다. 독판의 첫 번째 임명자인 조영하(趙寧夏), 협판의 첫 번째 임명자들인 민영익(閔泳翊)과 김홍집(金弘集), 참의의 첫 번째 임명자들인 홍영식과 목인덕(뮐렌도르프)은 모두 1882년 12월 5일에 임명된 이들이다.<sup>18)</sup> 가장 늦은 시기인 1893년 11월 26일 임명자는 독판에 임명된 조병직이다. 즉 『통리아문선생안』은 1882년 12월 5일~1893년 11월 26일까지 약 10여 년 간의 교섭아문의 관직 임명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리아문선생안』의 기록은 완전치 않다. 자나 호가 다른 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름이 이체자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선생안」에서 조영하는 “趙寧夏”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승정원일기』와 실록 그리고 과거 방목과 족보 등에는 “趙寧夏”로 표기되어 있다.<sup>19)</sup> 민종묵(閔種默)의 호는 “幹

17) 『통리아문선생안』에 등재된 인원의 전체 명단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독판, 협판의 명단과 출신배경 및 주요 경력은 전미란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전미란, 앞의 논문, 228~230쪽 참조), 주사들의 명단은 오승관의 연구와 모리 마유코(森万佑子)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오승관, 앞의 논문, 60~72쪽; 森万佑子, 앞의 책, 104~115쪽 참조). 그러나 모리 마유코가 제시한 주사 명단은 『통리아문선생안』 이외에 『통서일기』, 『초기(草記)』, 『본아문초기등록(本衙門草記謄錄)』, 『승정원일기』, 『일성록(日省錄)』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수집한 임명기록을 포함해 『통리아문선생안』에 등재된 주사 인원인 119명(중복포함 141명)보다 훨씬 많은 224명의 인원을 제시하고 있음이 유의된다. 참의 명단은 본 연구에서 아래의 [표 9]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리아문선생안』을 DB화한 정보를 토대로 등재자들의 연령과 출신 성분과 재임 기록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분석과 관련한 결과 값을 다른 자료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1882년 12월 4일 고종의 명으로 통리아문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되었다(『고종실록』 권19, 고종 19년 12월 4일(병진)). 이러한 관청의 변화를 기해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영식과 목인덕의 참의 임명일자는 『승정원일기』 기록과 『통리아문선생안』 기록에 차이가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홍영식은 1882년 12월 16일에 임명되었고, 목인덕은 1882년 11월 17일에 참의통리아문에 임명된 뒤 12월 5일 협판이 된다(『승정원일기』 제 2907책, 고종 19년 12월 16일; 『승정원일기』 제 2906책, 고종 19년 11월 17일).

19) 寧과 寧은 뜻이 통하는 자이나,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榜目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기록이 ‘趙寧夏’로 표기하고 있으며, ‘趙寧夏’로는 해당 인물에 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흥민씨세보(驪興閔氏世譜)』를 보면 “翰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20)</sup> 이밖에 생년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인적사항 상의 기타 자료와의 상이함은 전체 자료에서 모두 23건이 발견된다.<sup>21)</sup>

자료의 불완전성은 다수 발견되는 기록의 부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일부 인물들의 경우 자와 호, 생년 기록이 하나씩 누락되어 있다거나, 일부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모두 미기재 된 경우도 있으며, 임명과 체직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당 인물을 관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는 사례는 관직이 내려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독판직은 인적사항이 빠져 있는 사례가 없고, 협판의 경우 목인덕의 호를 비롯한 총5명의 인적사항이 빠져 있다.<sup>22)</sup> 참의직에서는 5명이 인적사항 미기재 사례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변수의 기본 인적사항이 빠져 있는데, 주사직에도 임명된 기록이 있어 생년은 신유(1861년)생으로 확인된다. 한편 참의에서는 ‘邊燧’, 주사에서는 ‘邊樹’로 이름의 표기도 다르다.<sup>23)</sup> 주사직에서는 총 16명의 인적사항 미기재가 확인된다.<sup>24)</sup>

이상과 같은 정보의 결손은 주사직에 임명된 인물들이 임명 당시 과거 시

바, ‘趙寧夏’가 올바른 성명 표기로 보인다.

20) 『여흥민씨세보』 권3, 306쪽.

21) 독판에서는 조영하의 성명, 남정철의 자 2건이, 협판에서는 남정철의 · 이현영의 자, 변원규(卞元圭) · 윤태준 · 이재원(李載元) · 강문형의 생년, 이조연의 호 7건이, 참의에서는 이완용의 자, 변원규의 생년, 이조연의 호 3건이 발견되고, 주사에서는 남정철 · 정학교 · 손봉구(孫鳳九) · 이시렵(李時瀾) · 박영류(朴永旒) · 임정수(林正洙) · 민동혁(閔東赫)의 자, 박영류 · 정병기(鄭秉岐) · 이희봉(李羲鳳)의 생년, 정경원(鄭敬源)의 호 11건이 발견된다. 주사가 141명 수록되어 있음에도 11건만 발견되는 것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선생안」에 기록된 정보가 앞선 세 선생안들보다 누락된 기록이 많기 때문이다.

22) 협판직에 임명된 이들 중 인적사항에 결손이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목인덕의 호, 심상학의 생년, 강문형, 이중철, 이현영의 호.

23) 참의직에 임명된 이들 중 인적사항에 결손이 있는 사례는 변수의 자 · 생년 · 호 · 본관, 목인덕, 박제교, 홍시형, 김두환의 호가 해당된다.

24) 지운영(池運永)의 자 · 생년, 변수의 자 · 호 · 본관, 김창현(金彰鉉)의 자, 이호근(李好根)의 호, 이상채(李相采)와 홍우관(洪禹觀)은 인적사항이 모두 빠져 있고, 김화식(金華植) 자 · 생년 · 호, 김영규(金泳圭)의 호, 민병익(閔丙益)의 호, 한진태(韓鎭泰) 자 · 호, 신경수(申慶秀) 자 · 호, 김선일(金善一)의 호가 빠져 있다. 이문영(李文榮), 임기호(任起鎬), 김윤현(金潤鉉), 이응달(李應達)은 앞서 기재한 바가 없는데도 ‘見上’으로 표기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험에 입격하지 못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 관료에 진출하게 되는 과거에 응시할 때 제출한 사조단자와 관직 합격 시 합격자의 신상정보가 기록되는 항목, 이전 관직 기록이 선생안 작성 시 참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sup>25)</sup> 실제로 독관부터 참의까지 총 64명 중 과거 합격자가 아닌 인물은 외국인이었던 목인덕을 위시하여 과거 합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이인응(李寅應), 변수, 윤치호, 홍시형, 정병하 6인이 전부였음에 비해, 주사직은 등재자 119명 중 과반이 넘는 74명이 과거(소과, 문과, 무과, 잡과 포함)에 입격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sup>26)</sup>

[표 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선생안』 중 소과, 문과, 무과, 잡과 합격자

번호	성명	과거 종류	합격년도	번호	성명	과거 종류	합격년도
1	김사철(金思轍)	문과	1878	24	이희봉(李義鳳)	문과	1876
2	남정철(南廷哲)	문과	1882	25	유치명(俞致乘)	진사	1876
3	정헌시(鄭憲時)	문과	1882	26	정경원(鄭敬源)	문과	1890
4	서상우(徐相雨)	문과	1882	27	조두환(曹斗煥)	진사	1876
5	윤기진(尹起晉)	문과	1882	28	이현상(李鉉相)	역과	1885
6	김가진(金嘉鎭)	문과	1882	29	심계택(沈啓澤)	문과	1892
7	고영철(高永喆)	역과	1876	30	이창세(李昌世)	진사	1880
8	정만조(鄭萬朝)	문과	1889	31	변석윤(邊錫胤)	생원	1873
9	이원궁(李源宮)	문과	1891	32	김화식(金華植)	생원	1879
10	이건호(李建鎬)	무과	1874	33	조성협(趙性協)	생원	1879

25) 『통리아문선생안』 선생안 작성의 모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승정원일기』로 볼 수 있다. 『통리아문선생안』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임명된 여러 인물들의 기재 순서가 『승정원일기』에서 언급되는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1883년(고종 20) 4월 29일 주사직에 임명된 이학규(李鶴圭), 정대영, 박계순(朴齊純)의 『승정원일기』 임명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교섭주사 세 자리에 이학규, 정대영, 박계순을 단부하였다.”(『승정원일기』 2019책, 고종 20년 5월 1일) 필자는 이에 대해 『통리아문선생안』과 『승정원일기』를 모두 대조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실지 못했다. 이는 여타의 선생안 사례와도 비교·검증함으로써 선생안의 작성 과정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6) 이밖에 뚜렷하게 관료 진출 계기가 확인되는 이들은 취재 출신은 2명(이시림, 강제륜), 천거 2명(정대영, 심상로(沈相老)), 음관 2명(엄주흥(嚴柱興), 이교헌(李喬憲))이 있었다. 동문학에서 수학했던 인물이 4명(김창현, 송달현(宋達顯), 홍우관, 김정하(金經夏)/ 역과 합격자인 고영철(高永喆) 제외), 육영공원 출신이 3명(신태무(申泰茂), 한진태, 이현상/ 문과 합격자 심계택(沈啓澤) 제외) 있었다. (전미란, 앞의 논문, 233쪽 참조)

11	김인식(金寅植)	문과	1880	34	민응호(閔膺鎬)	진사	1870
12	여규형(呂圭亨)	문과	1882	35	임정수(林正洙)	생원	1882
13	이종원(李種元)	문과	1891	36	민동혁(閔東赫)	진사	1874
14	조병승(趙秉承)	문과	1891	37	김화식(金華植)	생원	1879
15	정학교(丁學敎)	생원	1858	38	현 은(玄 璽)	역과	1880
16	진상언(秦尙彦)	역과	1882	39	조진백(曹鎭百)	생원	1859
17	이 전(李 璵)	역과	1879	40	심상필(沈相弼)	문과	1892
18	정만조(鄭萬朝)	문과	1889	41	이보한(李輔漢)	진사	1891
19	이경직(李庚植)	문과	1889	42	정병기(鄭秉岐)	의과	1880
20	안종수(安宗洙)	진사	1882	43	박시명(朴時乘)	진사	1873
21	박영류(朴永旒)	의과	1882	44	임정수(林正洙)	생원	1882
22	정병기(鄭秉岐)	의과	1880	45	윤영두(尹榮斗)	역과	1874
23	이원궁(李源兢)	문과	1891	총계	45명		

인적사항의 결손은 주사직 명단에서도 임명날짜가 늦을수록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889년(고종 26) 8월 25일 주사직에 임명된 이상체를 기점으로 명단의 마지막에 자리한 1892년 7월 30일 임명자인 윤영두 사이의 인물들의 인적사항은 다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1889년 8월 25일~1892년 7월 30일 임명자 56명 중 소과와 역과 합격자 1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물들 중에는 과거 합격자가 없다는 사실과도 궤를 같이한다. 반대로 과거 합격자가 1889년 8월 25일을 기점(위 [표 4] 30번 이창세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임명된 기록에 비해 2배 높게 분포해있으며, 이는 또한 해당 명단에서 인적사항의 결손이 전체 16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다시 말해, 임명자의 과거 합격 기록이 줄어드는 1889년 하반기부터 인적사항의 결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명날짜와 체직 시기는 성명과 인적사항의 하단에 기술되어 있다. 단순히 날짜만 적은 것이 아니라 임명 사유와 체직 사유 또한 아울러 병기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록에 몇 차례의 중임 기록이 중복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체제는 [그림 2]의 민병석(閔丙奭)의 사례이다. 민병석은 을유년인 1885년(고종 22) 11월 8일 임명되었고, 병술년인 1886년 2월 12일 체직되는데, 사유는 “遭艱” 부모상을 당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8개월 후이긴 하지만 1886년 10월 7일 민병석의 생부와 처의 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처럼 독판에서 참의까지의 재임 기록이 대체로 임명과 체직으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음 [그림 3]은 주사에 임명된 이창세의 사례이다. 이창세는 기축년인 1889년 7월 29일 형조정랑(刑曹正郎)에서 교섭아문의 주사가 되었다. 그리고 경인년인 1890년 8월 10일 순창원령(順昌園令)이 되어갔다가, 한 달 뒤인 9월 10일 다시 주사에 임명된다(“重來”). 동년 12월 27일에는 선공감별제(繕工監別提)가 되었다. 그리고는 신묘년인 1891년 10월 5일 사릉 령(思陵令)에서 교섭아문의 주사로 다시 임명되었다(“三重來”). 이후 다음 해인 임진년 1892년 3월에는 종묘서령(宗廟署令)에 임명되어 간다.

주사의 재임 기록은 이창세의 사례처럼 다소 복잡하고, 재차 임명된 기록을 아울러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리아문선생안』은 “見上”으로 재임명된 사례를 표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임명된 일자를 같이 적고 있는 경우가 많아 “見上” 표기만으로는 재임명된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실제 임명기록과 『통리아문선생안』 상의



[그림 2] 협판에 임명된 민병석의 사례

27) 『승정원일기』 2953책, 고종 23년 10월 7일. 같은 날짜의 다른 기사를 보면, 아버지나 본인이 병이나 부임할 수 없다는 기록과 함께 관원들의 집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날 민영준이 고종에게, 전염병으로 인해 병을 치료하고 시체를 묻는 문제에 관하여 아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886년 당시 한성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전역에 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박한민, 「1886년 조선 내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의사학』 29(1), 대한의사학회, 2020, 43쪽) 민병석 가족의 일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기록 횟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리아문선생안』의 관원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볼 때에는 이상의 지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임 기록을 살펴볼 때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가 미기재 된 사례가 많고, 기재 내용이 여타의 기록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통리아문선생안』은 대체로 임명 날짜는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체직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 관직에 따라 인원별로 파악하여 보면, 독판에서는 4건, 협판에서는 18건, 참의에서 14건, 주사에서는 82건으로, 전체 118건이 부재하거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승정원일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이한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수는 더욱 증가한다.

정리하면, 『통리아문선생안』은 관서 단위로 작성된 선생안이며, 여타의 선생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관직에서의 재임 기간 및 전후의 관직 이동 상황을 기록한 자료이다. 그러나 수록 내용은 기타 자료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결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통리아문선생안』을 활용에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한계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살펴본 『통리아문선생안』의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통리아문선생안』에서 주목하였던 분석 지점들, 즉 구성원의 연령·출신·전력·가문 등의 성분과 구체적인 재임기간을 상세히 재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주사에 임명된 이창세의 사례

### 3.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운영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상관성

『통리아문선생안』은 교섭아문에서 근무하였던 관원들의 기록을 담고 있

는 명부인 만큼 해당 관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관서의 설립과 업무, 인원에 대해서는 1882년 12월 4일 통리기무아문을 교섭아문으로 확대·개편하며, 그 직제와 권한 등을 규정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이하 장정)과 갑신정변 이후인 1887년 직능을 조정하면서 제정한 속장정이 주요 자료가 되었다면, 『통리아문선생안』은 그 관서 안에서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인물들의 면면에 관한 참조 자료가 된다.

장정에 따르면, 교섭아문은 4사(司) 1학(學)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장교사(掌交司), 정각사(征權司), 부교사(富敎司), 우정사(郵程司)와 同文學(동문학)이 그것이다. 장교사는 외교 교섭과 사신 파견, 조약 개정 등의 업무를 관할하였고, 정각사는 해관이나 국경의 관문인 변관(邊關)의 징세 업무, 개항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교사는 이원(利源)을 개척하기 위한 화폐 주조 및 개광(開鑛), 관은호(官銀號), 초상사(招商社), 잠상(蠶桑), 목축 등을 맡았다. 그리고 우정사는 전보, 역전(驛傳), 철로나 수륙 통행로 등의 교통로를, 동문학은 학원들에게 외국어 교육과 서양의 학문을 가르쳤다.<sup>28)</sup>

독판은 위와 같은 구조의 교섭아문을 총치(總治), 즉 총괄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띠는 자리로, 1원(員)을 두었다. 협판은 4사의 영수(領袖)로, 4원을 두었다. 참의 또한 4원으로, 각사를 대표하는 협판의 업무를 도왔다. 주사는 각사(장교사와 정각사에는 각 2원, 부교사에는 3원, 우정사에는 1원)에 나뉘어 문서를 기록하고, 발송하는 기본적인 업무와 더불어 각사가 분장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왔다.<sup>29)</sup>

장정에 따라 실제로 교섭아문이 설치된 1883년 12월 4일 다음날인 12월 5일에는 독판 조영하가 임명되었고, 같은 날 협판, 참의가 각각 임명되었다. 그러나 장정에서 협판과 참의를 각 4인씩 배정하고 있는 규정과는 다르게

28)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奎15324).

29)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奎15324). “一. 設督辦官一員總治四司兼同文學校”, “一. 設協辦官四員領袖四司”, “一. 設參議官四員分助各司”, “一. 設主事分隸各司專主牘繕收發各檔券除平常信札外大事不得主稿其經本署派往辦理各司者亦不得籍故推諉”.

『통리아문선생안』 상에서 1882년 12월 5일에 임명된 협관은 민영익·김홍집, 참의는 홍영식·목인덕 뿐이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첫 독관에 임명되었던 조영하는 교섭아문의 전신인 통리아문의 책임자인 관리통리아문사무(辦理統理衙門事務)였으며, 협관에 임명된 김홍집은 협관통리아문사무(協辦統理衙門事務), 목인덕은 참의통리아문사무(參議統理衙門事務)였다.<sup>30)</sup> 이는 교섭아문의 독관·협관·참의가 새로 임명되기 불과 보름여 전인 1882년 11월 17일의 임명 기록이다. 다시 말해 12월 5일 임명된 독관·협관·참의 5인 중 3인은 이전 통리아문 시기에 임명된 이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섭아문은 단순히 통리아문의 명칭이 바뀐 것만이 아닌 인적 구성까지도 고스란히 계승한 관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사는 1883년 1월 20일 처음 임명된다. 김사철(金思轍), 남정철, 정헌시(鄭憲時), 서상우(徐相雨), 윤기진(尹起晉), 김가진(金嘉鎭), 고영철, 유길준(兪吉濬), 정만조(鄭萬朝), 지운영 등 10인이 동시에 임명되었다.<sup>31)</sup> 그렇다면 1882년 12월 5일부터 1883년 1월 20일까지 주사가 임명돼 있지 않았던 47일여의 기간 동안 교섭아문의 주사 업무는 누가 담당하였을까. 앞서도 보았듯, 교섭아문은 통리기무아문과 통리아문을 계승한 관서였고, 그 명칭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되며 외교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즉 교섭아문이 설립되기 전인 통리기무아문과 통리아문에도 주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교섭아문 이전 통리기무아문의 주사직은 주사와 부주사로 나뉘어 임명되었다.<sup>32)</sup> 『승정원일기』를 통해 파악되는 주사·부주사에 임명된 이들의 명단은 다음의 [표 5]과 같다.

30) 『승정원일기』 2906책, 고종 19년 11월 17일.

31) 『승정원일기』 2908책, 고종 20년 1월 20일.

32) 주사는 1881년(고종18년) 통리기무아문의 낭청을 주사와 부주사로 칭하도록 하면서부터 붙여지기 시작하였다(『승정원일기』 2883책, 고종 18년 1월 10일).

[표 5] 『승정원일기』상 통리기무아문 주사·부주사 명단

날짜	주사	부주사
1881년 1월 10일	송병서(宋秉瑞), 조충희(趙忠熙), 유석(柳), 이명재(李命宰), 홍제정(洪在鼎), 윤태준, 구덕희(具德喜), 이중하(李重夏), 이위(李暉), 정현시, 임경준(任慶準), 김용래(金用來), 유완수(柳完秀)	이조연(李祖淵), 한용원(韓龍源), 박영선(朴永善)
1881년 1월 16일	송병서, 조충희, 유석, 이명재, 홍제정, 윤태준, 구덕희, 이중하, 이위, 정현시, 임경준, 김용래, 유완수	이조연, 한용원, 김승균(金勝均), 유협용(柳協用), 박영선
1881년 2월 5일	송병서, 조충희, 유석, 이명재, 홍제정, 임경준, 정현시, 유완수, 김용래, 김승균, 이조연, 박영선	윤태준, 이중하, 구덕희, 이위, 한용원, 유협용
1881년 5월 27일		윤현(尹濂), 서상우
1882년 2월 3일	어윤중(魚允中), 이중칠(李重七), 신기선(申箕善), 박영교(朴泳敎)	
1882년 5월 23일	이범진(李範晉)	정용섭(丁龍燮)
총계	43인(중복 포함)/21인(중복 미포함)	17명(중복 포함)/ 12명(중복 미포함)

위 [표 5]의 윤태준, 이중하, 정현시, 이조연, 서상우, 어윤중, 이중칠 등은 『통리아문선생안』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이다. 또한 이 중 정현시와 서상우는 교섭아문의 첫 주사로 임명된 이들이다. 이처럼 통리기무아문의 주사·부주사에 임명된 이들의 성명과 『통리아문선생안』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인물들의 성명을 보면 이들이 해당 업무를 연속적으로 맡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즉 위 인물들의 존재를 통해 통리기무아문이 통리아문으로, 통리아문이 교섭아문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이의 해당 관서의 업무의 연계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교섭아문 설립 초기 주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 초기 교섭아문의 인원은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다. 이후 교섭아문은 갑신정변 이후 1885년 5월 경 내무부가 교섭아문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외교와 통상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되고, 1887년에는 직무 규정을 개정해 4사 1학 체제였던 것을 6사 체제(총무사·교섭사·번역사·기록사·통상사·회계사)로 개편하면서 외교와 통상만을 전담하는 관서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sup>33)</sup>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제개혁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인적 구성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자한다. 독판에 임명된 이들의 평균 나이는 52세(51.8)이고, 협판의 평균 나이는 46세(45.8세)이다. 참의의 평균 나이는 41세(40.9)이다. 주사의 평균 나이는 38세(38.5)이다. 이와 같은 연령분포는 일반적으로 관직의 고하와 품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시기에 따라 분류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된다.

다음의 표는 관직별, 시기별로 『통리아문선생안』의 평균 연령을 산정해본 것이다. [표 6]은 『통리아문선생안』에도 특징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880년대 정국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인 1884년의 갑신정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표 7]은 대대적인 관제 개편이 있었던 1887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의 평균 연령을 살펴본 것이다.

[표 6] 갑신정변(1884) 기준 독판·협판·참의·주사의 평균 연령 변화

	독판	협판	참의	주사
갑신정변 이전	48세	40세	37.6세	34세
갑신정변 이후	53.7세	48.8세	43.5세	39.5세

[표 7] 1887년 기준 독판·협판·참의·주사의 평균 연령 변화

	독판	협판	참의	주사
1887년 이전	46세	43.5세	39세	34.8세
1887년 이후	57세	51.1세	45.2세	40.6세

위의 두 표의 공통적인 결과는 갑신정변을 기준으로 하든 1887년을 기준으로 하든, 두 시기를 기준으로 교섭아문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여 본다면, 후반기의 평균 연령이 전반기의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갑신정변 이후부터 또는 넓게 보아 관제 개혁이

33) 이외 가장 큰 변화는 주사직의 인원이 8인에서 24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奎15324),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續章程』“第四條 主事二十四員分隸各司專主筆記勘辦之四”).

후부터 임명된 이들의 평균 연령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갑신정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로 당시 조선의 정치권이 보수화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1890년을 전후로 하는 주사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도 관련하여 그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섭아문 운영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1890년 전후로 교섭아문에 출근하는 인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주사직 중에서는 1892년 이후부터는 고정적으로 교섭아문에 출근해 근무하게 10인 외 나머지 출근하지 않았던 나머지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sup>34)</sup> 한편 임명은 되었으나 출근하지 않은 자들의 임명은 정치적 임명에 가깝다고 보았다.<sup>35)</sup>

실제로 『통리아문선생안』 상에서, 시기를 좀 더 확대해 살펴보면, 1887년 이후부터 1892년까지 임명된 자들 88인 중 40세 이상의 자는 56인이며, 이 중 주사 평균 근무일수인 약 600일 미만 근무자는 24명으로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인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한다. 이상의 결과와 기존 연구를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 교섭아문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시기 교섭아문 운영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근무일수를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도 살펴보았듯 독관부터 참의까지는 총 64명 중(중복 임명 포함) 과거 합격자가 아닌 인물은 6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주사에서는 전체 141명 중 과거합격자는 총 45명으로 오히려 과거 합격자의 수가 대략 1/3가량이 적었다. 여기에 주사직에 임명될 당시 과거 합격 여부까지 따지면 그 수는 더 감소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에 주목하고, 그에 더해

34) 고정적으로 교섭아문에 출근해 근무하도록 총무로 선출된(업무에 숙련·숙달된 자로써 대외사무를 책임지고 종사하게 된) 주사 인원은 사직에 따른 구성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10인이었다(森万佑子, 앞의 책, 98쪽). 김영문, 이현상, 유기환, 정대영, 진상언, 박세환, 정대유, 이응익, 이강하, 김병훈, 조성협, 김하영, 이학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5) 森万佑子, 앞의 책, 91쪽; 98쪽.

재임자들의 외국 경험까지 살펴 외교 실무를 담당한 교섭아문의 전문성을 논한 바 있다. 또한 주사직에 임명된 이들 중 정부에서 설립한 근대 교육 기관인 동문학과 육영공원 출신자들, 과거를 거치지 않은 외국 유학생들, 그리고 참의나 협판까지도 승진하였던 역관 출신의 임명자들이 교섭아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당시로서는 근대적인 인사대응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sup>36)</sup>

과거 합격 여부를 떠나 직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평가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출신 성분과 인사가 교섭아문의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임용 후 이들이 교섭아문에서 얼마만큼 연속적이며, 지속적으로 근무했는가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것이 교섭아문의 운영에 미쳤을 영향을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서는 동문학과 육영공원, 중인(기술직 중인과 중인 가문 출신자 포함) 및 비 과거 합격자들의 근무일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관직별 평균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판의 경우 348.3일, 협판의 경우 440.5일, 참의는 371.3일, 주사는 610.1일이다.<sup>37)</sup> 이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각 관직별 상위 근무일수자를 표기한 표이다.

36) 전미란, 앞의 논문, 234; 249쪽.

37) 이 결과는 『통리아문선생안』에 등재된 이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임기간은 최대 『통리아문선생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결손이 있는 기록의 경우 『승정원일기』를 통해 보충하였다. 주사직 임명자들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갑오개혁으로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1894년 6월 28일(양력 7월 30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한정하였다.

[표 8] 독판/협판직 상위 10인의 근무일수

	이름	근무일수		이름	근무일수
1	민종목(閔種默)	1,183	1	박주양(朴周陽)	1,101
2	김윤식(金允植)	910	2	이인응(李寅應)	953
3	조병식(趙秉式)	678	3	서상우(徐相雨)	949
4	민영목(閔泳穆)	414	4	(仙)이중철(李重七)	945
5	조병직(趙秉稷)	398	5	강문형(姜文馨)	843
6	남정철(南廷哲)	203	6	변원규(卞元圭)	807 (273+534)
7	김병시(金炳始)	199	7	목인덕(穆麟德)	777
8	서상우(徐相雨)	63	8	조병직(趙秉稷)	655
9	조병호(趙秉鎬)	47	9	김홍집(金弘集)	650
10	김홍집(金弘集)	46	10	이명재(李命宰)	635

아울러 살펴보기 위해 독판 임명자의 근무일수를 제시하였으나, 사실 독판직에는 앞서 제시한 경우의 출신자들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서상우라는 인물의 존재이다. 서상우는 앞서도 보았듯 통리기무아문 부주사를 지낸 바 있으며, 교섭아문에서도 1883년 주사, 1884년 참의와 협판, 1887년 독판까지 차근차근 승진해, 약 4.6년 1,700여일에 가까운 시간을 교섭아문에 있었다. 이밖에도 협판을 지내고 독판에 올랐으며 1894년 외무아문 체제에서 외부대신을 역임하게 되는 김윤식이 있고, 역시 협판을 지내고 독판에 올라 갑오개혁기 총재직을 역임했던 김홍집이 있다. 이어 언급할 변원규 또한 참의와 두 차례 협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관직 승진 사례는 교섭아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충분히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변원규는 협판 직에서 유일한 역과 출신의 기술직 중인이다. 변원규는 한학을 전공하였으며, 1855년(철종 6) 역과에 합격했다. 그의 아버지 변광원(卞光源)은 전의감직장을 지냈고, 생부 변광운(卞光韻)은 역과 출신이었으며, 조부는 의과 출신으로 가문 전체가 대대로 기술직 중인을 지낸 가문이었다.<sup>38)</sup> 변원규는 『통리아문선생안』의 중인 출신 임명자 중 가장 높은 관

38) 『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19]).

직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위의 [표 8]에서 볼 수 있듯, 변원규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협판직에 임명되어 807일의 시간을 협판으로 보냈다. 또한 참의로도 426일을 근무했다. 총 1,233일을 교섭아문에서 근무한 것이다.

다음의 [표 9]는 다른 관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참의직에 임명된 이들 전부를 근무일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표 9] 참의직 근무일수

	이름	근무일수		이름	근무일수
1	정헌시(鄭憲時)	2,159	13	조병필(趙秉弼)	154
2	이중하(李重夏)	1,523	14	김학진(金鶴鎭)	144
3	김만식(金晩植)	645	15	김두환(金斗煥)	52
4	이조연(李祖淵)	601	16	정병하(鄭秉夏)	45
5	이교영(李敎榮)	540	17	홍영식(洪英植)	39
6	김옥균(金玉均)	538	18	김사철(金思轍)	39
7	변원규(卞元圭)	426	19	박제교(朴齊敎)	30
8	홍시형(洪時衡)	402	20	서상우(徐相雨)	8
9	이용직(李容植)	387	21	변 수(邊 燧)	5
10	목인덕(穆麟德)	355	22	윤치호(尹致昊)	5
11	이명재(李命宰)	256	23	이완용(李完用)	0
12	고영희(高永喜)	187			

참의직에 임명된 이들 중 특정한 성분을 가진 인물들은 위의 [표 9]에 음영 처리된 인물들이다. 홍시형은 과거 합격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홍문관과 사헌부, 승정원 등에서 활동한 문신으로 알려져 있어 그 출신 성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변수와 윤치호는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윤치호의 경우 일본 유학 경험이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갑신정변 기간 중인 1884년 10월 18일 임명되어 5일 후인 22일에 참의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갑신정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김옥균·박영효 등과 친밀했기 때문에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1885년 1월 상하이로 망명한 바 있다. 변수는 개화사상가인 강위(姜瑋)의 제자로, 강위와 함께 1882년 김옥균의 일본 시찰

을 수행하였다. 갑신정변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실패 후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완용은 육영공원 출신자이나, 1888년 10월 15일 참의직에 임명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혀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밖에 변원규, 고영희(高永喜), 김두환, 정병하는 모두 본인이 잡과에 입격하였거나 집안이 기술직 중인 출신인 인물들이다. 고영희는 왜학을 전공한 역과 합격자로, 그의 아버지인 고진풍(高鎭豐)은 물론이고, 형제 고영주(高永周)·고영선(高永善)·고영철과 처부인 이호기(李浩基)까지 모두 역과 출신이었다.<sup>39)</sup> 김두환은 음양과에 입격한 인물로, 조부는 역과, 증조부는 사역원생도를 지낸 바 있으며, 외조부는 율학교수를 지낸 바 있다.<sup>40)</sup> 마지막으로 정병하는 본인은 잡과 등 과거에 입격하진 않았으나 전의감직장을 지낸 정무선(鄭懋善)을 조부로 둔 기술직 중인 출신 집안이다. 증조부 정이교(鄭履教) 또한 의과 출신자였다. 주사직에 임명된 바 있고 본인이 의과합격자였던 정병기는 정병하와 같이 정무선을 조부로 하는 온양 정씨 가문이다.<sup>41)</sup> 정병기는 1880년(고종 17) 의과 합격자이며, 아버지 정윤구(鄭允求)는 전행전의감직장이었다.<sup>42)</sup>

정리하여보면, 독판직에는 특별한 출신인 인물들은 없었고, 협판직에는 역과 출신자인 변원규가 상당기간 근무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의직에서는 총 8인의 특별 출신 인물들이 확인되었지만, 채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이완용과 갑신정변 관련자들을 제외한 특별 출신 인물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중인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26일을 근무한 변원규 외의 인물들은 참의직의 평균 근무일수인 371.3일에 한참 못 미치는 근무일수를 보였다. 즉 독판·협판·참의직에서 근무하며 교섭아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큼 장기간 근무한 이들은 주로 문과 출신의 인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39) 『역과방목』(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40) 『雲觀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 5120-130]).

41) 鄭志喆 편, 『溫陽鄭氏世譜』(K2-1771), 616쪽; 618쪽.

42) 『의과방목』(하버드옌칭도서관[K 2291.7 1749 Oversize]); 『醫譯壽八世譜』(奎15186).

43) 모리 마유키는 『통서일기』 상에서 주시는 늘 누군가가 출근해 있었던 반면, 독판·협판·참의는

그렇다면 주사직은 어떠하였을까. 앞서 밝힌 대로 주사직은 141명(중복 포함)의 임명 기록인 까닭에 지면상의 한계로 여기서는 전부를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판, 협판과 마찬가지로 근무일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명의 명단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주사직 근무일수 상위 10인

	이름	근무일수	출신
1	윤현구(尹顯求)	3,382 (253+937+2192)	
2	정대영(丁大英)	3,203 (2367+836)	천거
3	진상언(秦尙彦)	3,171	잡과-역과(1882)
4	정병기(鄭秉岐)	2,451 (1869+582)	잡과-의과(1880)
5	박영류(朴永旒)	2,317	잡과-의과(1882)
6	이현상(李鉉相)	2,168	취재(1882) 잡과-역과(1885) 육영공원(1886)
7	정대유(丁大有)	2,157	
8	정만조(鄭萬朝)	2,003 (511+1492)	문과
9	김용묵(金容默)	1,814 (1333+405)	
10	윤치항(尹致恒)	1,738	

주사직에서 가장 많은 일수를 근무한 1위는 윤현구이다. 윤현구 본인은 과거에 합격한 기록이 없으나, 아버지인 윤영선(尹永先)은 1848년(헌종 14)에 생원시에 입격한 기록이 있으며, 주로 지방 수령직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윤현구의 외조부인 신태유(申泰有) 또한 생원시 입격자였다.<sup>44)</sup> 즉 윤현구는 문과 출신 집안인 것이다. 2위 정대영은 “천거된 사람”이라는 『승정원일기』상의 기록이 있어 그가 천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출근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고 한다(森万佑子, 앞의 책, 90쪽). 이는 교섭아문 재임자들 중 상당수가 경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섭아문 재임자들의 경직 여부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酒井裕美, 앞의 책, 53~59쪽.

44) 『해평윤씨대동보』 권3, 959쪽; 『崇禎紀元後四戊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22]);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王大妃殿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冊禮王大妃殿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TK 2291.7 1746(1813)]).

다음으로 근무일수로 3~6위를 기록한 진상언, 정병기, 박영류, 이현상은 잡과 출신자들이었다. 특히 진상언은 윤현구와 정대영이 중임하여 3,000일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것에 비하면, 1884년 7월 10일부터 1894년 교섭아문이 폐지될 때까지 중임 없이 근무한 사례에 해당한다.<sup>46)</sup> 거의 대부분의 관직생활을 교섭아문에서 보낸 것이다. 진상언은 1881년 영선사행에 포함되어 청나라 천진에 파견되었던 전력<sup>47)</sup>이 있다. 영선사의 유학생들은 천진에서 외국어와 근대 무기제조법 등을 배웠는데, 이러한 진상언의 전력은 교섭아문에서의 관직 활동에 많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류는 17세에 의과에 합격한 인물로, 24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교섭아문 주사에 임명되어 상당한 기간을 교섭아문에서 근무하였다.<sup>48)</sup> 이현상은 18세에 취재로 관직에 나아가 21세가 되는 1885년에 역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이해명(李海明)과 조부 이종직(李鍾直), 외조부 윤득연(尹得淵) 등이 주학 취재 출신으로 주학훈도와 주학교수직을 지냈으며, 증조부와 처부는 역과 출신인 전형적인 기술직 중인 출신의 가문이다.<sup>49)</sup> 또한 그는 1885년 육영공원에 좌원으로 입학해 수학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1888년 교섭아문 주사직에 임명돼 활동하였던 것이다. 박영류와 이현상은 진상언과 마찬가지로 중임 없이 연속하여 교섭아문 주사직에 있었다. 이는 중인 출신의 인물들이 오랫동안 교섭아문을 지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sup>50)</sup>

45) 『승정원일기』 2680책, 고종 1년 8월 1일(을사).

46) 1890년 10월 29일 상서원 별제에 임명된 기록이 있으나, 같은 날 같은 기록에서 바로 교섭아문 주사로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 3002책, 고종 27년 10월 29일(을축)).

47) 민희수, 「대한제국기 務安監理 秦尙彦의 반침략 외교활동」,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2020, 186쪽.

48) 박훈평 편, 『한국의학사료총서 4 -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한국의학연구원, 2018, 170쪽.

49) 『壽學入格案』 2책 (古4650-5-v.1-2).

50) 이외의 중인 출신으로는 참의를 지낸 고영희의 동생 역과 출신 고영철과 같은 역과 출신인 이진(李璵)·현은(玄隲)·윤영두, 취재 출신 이시렴·강계륜 등이 있었다. 이들의 근무일수는 강계륜 139일, 윤영두 321일, 이시렴 487일, 이진 629일, 고영철 663일, 정병하 916일로 결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중인 출신 주사들이 꽤 오랜 시간 근무하며 업무를 이어감으로써 교섭아문의 전문성을 키웠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밖에도 육영공원과 동문학 출신인 인물들도 있었으며, 무과 출신, 음관출신, 천거 출신들도 있었다.

이상 재임기간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보면, 결론적으로 주사직 임명자들이 가장 오랜 기간 교섭아문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 중 상당수가 비 과거 출신자 또는 중인 출신이었다는 점과 교섭아문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그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물론 교섭아문이라는 관서의 전반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하였던 것은 고종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었던 독판 및 협판들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하에서 실무를 떠맡치고,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었던 이들은 다양한 관로를 통해 임용되었던 주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이 글은 『통리아문선생안』의 사료적 가치를 재고하고자 자료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그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 즉 구성원의 출신 성분과 구체적인 재임기간을 재분석함으로써 교섭아문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 간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통리아문선생안』은 여타의 선생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직에 임명된 등재자들의 인적사항과 임명 및 체직 시기, 사유 등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임명·체직란에서는 중임된 사례도 아울러 기재하고 있어 자료 활용시 주의가 필요하였다. 또한 『통리아문선생안』은 다수 기록의 부재와 오기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는 상세한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통리아문선생안』의 자료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타 자료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였고, 그를 기반으로 DB화를 수행

51) 앞서 살펴본 모리 마유키의 연구에서, 1892년 이후 고정적으로 교섭아문에 출근해 근무하도록 총무로 선출된 10인파 [표 10]의 주사 장기근속자 중 중복되는 인물은 정대영, 진상인, 이현상, 정대유 등 4인이다. 이밖에도 총무를 지낸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근무일수 상위 50위 안에 드는 인물들이다. 모리 마유키는 교섭아문의 총무 출신들이 외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갑오개혁으로 교섭아문이 외무아문으로 바뀐 후에도 외교 관련 관직에 진출하였음을 규명하였다(森万佑子, 앞의 책, 101쪽의 표3-6 참조). 이렇듯 두 연구 결과를 통해 교섭아문에서의 외교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였다.

『통리아문선생안』의 수록 내용을 통해서도 교섭아문의 변화와 인적 구성 간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반 임명 기록으로는 교섭아문이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통리기무아문과 통리아문의 연계성을 담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신정변과 관계개혁을 기준으로 하는 등재자들의 임명 당시의 연령을 비교하여 교섭아문의 후반기의 연령이 전반기의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높은 연령의 재임자들의 경우 대체로 후반기에 임명되었으며, 근무일수가 적었다. 이들에 대한 임명은 당시 정치권의 분위기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섭아문 운영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근무일수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에 따라 등재자들의 출신 성분과 근무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이들이 주사들이며, 또한 그중에서도 중인 출신 및 비 과거 출신 인물들이 장기간의 근속으로 교섭아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섭아문은 조선 정부가 외교의 전담을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였다. 즉 교섭아문의 전문성 유지는 교섭아문 운영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전문성 담보의 측면을 『통리아문선생안』에 담겨있는 인적 구성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섭아문의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외교 업무를 전문화하고자 하였던 조선 정부의 교섭아문 운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인물들, 특히 교섭아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주사직들의 정보가 부진해 그들의 행보를 통한 교섭아문의 전문적인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 정부의 교섭아문을 통한 외교의 상세한 전문성 유지 노력은 주사직 인물들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작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高宗實錄』, 『南陽洪氏南陽君派世譜』, 『承政院日記』, 『驪興閔氏世譜』, 『溫陽鄭氏世譜』, 『譯科榜目』, 『完山李氏密城君派世譜』, 『雲觀榜目』, 『醫科榜目』, 『醫譯籌八世譜』, 『籌學入格案』, 『青松沈氏大同世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先生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先生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參議先生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協辦先生案』, 『統理衙門先生案』, 『海平尹氏大同譜』

森万佑子, 『朝鮮外交の近代: 宗屬關係から大韓帝國へ』, 名古屋大學出版會, 2017.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2016.

김수암, 「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도 수용: 외무부서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34(2), 한국정치학회, 2000.

김필동, 「갑오경장 이전 조선의 근대적 관제 개혁의 추이와 새로운 관료 기구의 성격」, 『사회와 역사』 33, 한국 사회사학회, 1992.

민희수, 「대한제국기 務安監理 秦尙彦의 반침략 외교활동」,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2020.

\_\_\_\_\_, 「갑오개혁 이후 대외교섭체계의 변화」, 『東方學志』 2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박영미 · 정성준, 「사학겸교수선생안(四學兼教授先生案) 분석」, 『교육사학연구』 29(2), 교육사학회, 2019.

박한민, 「1886년 조선 내 클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의사학』 29(1), 대한의사학회, 2020.

오승관, 「갑오개혁 전후 관제 변화와 主事職」,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유바다, 「交隣에서 外交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한국사학보』 77, 고려사학회, 2019.

이남희, 「『산학선생안』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고문서연구』 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이중서, 「蔚山府先生案의 체제와 성격」, 『고문서연구』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장영숙, 「내무부 존속년간(1885년~1894년) 고종의 역할과 정국동향」, 『상명사학』 8, 상명사학회, 2003.

전미란,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 24 · 2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9.

한승연, 「행정개혁기구의 개혁 성공 조건: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의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1), 한국정치학회, 2015.

한철호, 「閔氏威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 『韓國史研究』 90, 한국사연구회, 19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main.do>

신천강씨대중회, <http://www.sckang.org/sk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ongliAmun-Seonsaengan*(統理衙門先生案) in Jangseogak(藏書閣)

-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Operation of the Foreign Office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Its Members -

Jeong, So 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ongliAmun-Seonsaengan*(統理衙門先生案), the predecessors list of ‘Tongli-Kyosub-Tongsang-Samu-Amun’(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the Foreign Office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An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Office and its members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rank and service period of the predecessors. This record contains duplicate records of appointments and replacements, and several records are missing or incorrectly written. Accordingly, the limitations were complemented and analyzed by comparing with other records. As a result, the connection between the Foreign Office and the work of previous diplomatic offices was confirmed through successive appointments. Based on Gapsin Coup and the reform of the Foreign Office in 1887, the trend of increasing the average age of registrants was examin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working days and the Foreign Office’s operational expertise was confirmed. Theref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ackground of workers and the number of days worked, low-level officials worked the longest. Among them, the Foreign Office was able to maintain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because people from *chungin*(中人)

---

\* Ph.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Wonkwang University

work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Therefore, this record shows how the Korea government operated the Foreign Office professionally.

**Key words:** *Seonsaengan*(先生案), *TongliAmun-Seonsaengan*(統理衙門先生案), Foreign Office, Diplomacy, *chungin*(中人)